

법 어

민족의 영산 한라산 자락에 이제 겨울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제주도는 탐라국이라 하여 독자적인 문화와 관습을 유지하여 왔으며, 다양한 신앙을 포용한 가운데서도 깊은 불심을 유지해온 신심 깊은 고장입니다. 일찍이 삼국 시대를 전후하여 이 지역에 불교가 전파된 이래 고려 중기에서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 제주도는 찬란한 불교문화의 꽃을 피웠습니다.

조선 시대를 지나면서 무불시대라고 일컬을 만큼 불교의 시간과 침체의 역사를 가지기도 하였지만, 제주민중들은 불교 신앙을 생명과 같이 호지하고 보존하여 끝내는 오늘날의 찬란한 불교문화로 꽃피우게 되었습니다. 제주불교의 중흥조라고 불리는 안봉려관 스님이 관음기도를 하며 관음사를 창건한 것을 시작으로 연이어 여러 사찰이 창건되었고 1962년 비로소 관음사가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 본사로 지정되면서 제주불교의 현대적 지평은 넓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관음사는 내년으로 본사 지정 50주년을 맞게 됩니다. 그동안 제주도는 우리 국민이 애호하는 대표적인 관광지에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탈바꿈을 하였습니다. 얼마 전에는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되는 경사를 맞으며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세계자연유산 등재, 세계지질공원 인증 등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자연과학분야 3관왕을 달성한 세계유일의 지역이라는 이름에 새로운 명성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제주불교는 그 역할이 더욱 증대되어야 하는 시대적 사명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먼저 관음사는 제주도민의 신심을 증장시키고 불자와 지역주민의 화합에 앞장서야 합니다. 타 지역과는 다른 독특한 문화와 불교 구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여러 종단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화합하는 모습을 통해 제주도민의 불심을 복돋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일이 아닙니다.

아울러 세계속의 명소이기에 외국인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문화와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지키고 보존할 수 있는 생태, 환경 지킴이의 역할도 수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관음사가 본사로서의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하는 길이며 스스로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취임하시는 성효스님은 그동안 총무원과 중앙종회 등 종단의 주요 소임을 원만하게 수행하였고 조계종 환경연대위원과 생태지평 이사를 역임하는 등, 시민과

사회속에서 불교의 역할과 실천력이 누구보다도 밝은 스님입니다. 이러한 스님의 이력을 통해 교구본사로서 관음사의 위상을 드높이는 것은 물론, 제주도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문화, 포교 활동을 수행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모든 사부대중이 신심과 원력을 한데 모아 제주불교의 발전과 활성화에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불어 관음사를 중심으로 어렵고 혼란스러웠던 상황들을 묵묵히 극복해가며 지난 4년동안 제주불교의 안정과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원종스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신임 주지스님의 진력으로 제주도민의 고충과 사회의 어려움을 하얗고 포근한 눈처럼 끌어안아 맑고 깨끗하게 해소하기를 발원합니다. 다시한번 성효스님의 교구본사 주지취임을 축하합니다.

불기2555(2011)년 12월 1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